

## 새로운 산업보건을 기대하면서



한국산업위생학회장(순천향대의대) 안 규 동

1968년 대학을 나와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공장에서 몇 년을 보낸 후 1973년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입사하여 산업보건에 발을 디뎠으니 벌써 30년의 세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사업의 당위성은 1971년 전태일 열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항의의 분신자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산업보건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즉,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산업보건사업이 정부의 감독 하에서 이제까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동안의

성과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1987년 6.10 항쟁이후 당시까지 묵묵히 일만하여 오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몫을 주장하기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주와 정책당국자들과의 갈등은 점차 커져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구조조정은 일반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정규직에서 몰아내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전보다 더 불안정하며, 갈등요소도 더 많아졌다.

한편 정부 주도하에서 시행되는 산업보건사업은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들의 불만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산업보건사업은 이제 그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근로자들과의 상호대화가 없는데서 일방적인 정부의 시책과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무비판적 동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필요한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은 그 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업주 간에 해결되어야 할 행정적이고도 법률적인 문제이지 산업보건전문가에게는 아무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산업보건 전문가를 통제 내지 규제하는 제도는 떠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에 관한 법과 정

책은 어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근로자의 삶의 질이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규정될 성격이 못되고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보건이란 근로자가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몫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하여 못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산업보건사업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들의 제몫을 찾아주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오늘의 산업보건이 있기까지 노력하여 왔던 선구적인 원로들의 노고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로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다가가는 전문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2차로 이행되는 1970년대 수출일선에서 일 하였던 20세 전후의 1세대 근로자들과 1980년대 초의 2세대 근로자들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이 노동현장을 떠났고, 1980년대 말 즉, 3세대라고 할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 노동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기득권층과의 갈등인 마지막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공기업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외치는 소위 선진국 유학파들은 1-2세대 근로자들이 끼니를 굶어가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결과로 그 같은 기득권층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러한 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3세대 근로

자들은 이제 구조조정이 기득권과 소외계층을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를 고착화하려 한다는 의도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솔직한 심정으로 대화를 하여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의 일부는 실제로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업보건사업에도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삶의 질을 살피는 쪽으로 시각을 모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경제개발에서 주역으로 일하였으나 그 결과는 소외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들을 아마도 똑같은 방법으로 숙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이 다소 더디어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야 올바른 인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소득이 세계 몇 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없는 한, 그리고 여름철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땀흘리는 농부가 없는 한 그러한 사회는 지탱을 할 수 없다. 과학이나 경제성장이 삶에 조금 필요할 뿐이지 삶의 목적이 과학적이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세상은 서로간의 협동과 조화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지 경쟁을 통한 비열함이 판치는 사회가 오래 유지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문**